

# ■ 2020 서울 합격수기

## [목 차]

I .기본정보 .....	1
II .1차 합격과 불합격의 원인분석 .....	3
III .1차 시기별 계획 .....	13
IV .2차 준비 .....	17
V .마무리 .....	20

### I .기본정보

안녕하세요. 2020년 서울지역에 재수로 합격한 사람입니다. 임용준비를 하면서 많은 합격자분들의 합격수기를 읽고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나 저와 유사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격수기를 작성합니다. 참고로 저는 단기간에 합격하지 않았구요. 심지어 초수시절은 그냥 초수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저의 합격수기는 재수이상하신 분들께 적절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초수이신 분들은 저의 실패원인을 읽으면서 반면교사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시험성과와 저의 학력 및 전반적인 학습정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 A . 성적

그동안 제가 서울지역에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재수 모두 올인했습니다.

	1차(100)		2차(100)				결과/총점(200)
	교육학(20)	전공(80)	실기시험(30)	심층면접(40)	수업실연(20)	지도안(10)	
초수(2019)	15.67	44.33	-				1차 불합격
	합계: 60 [컷 -3]						
재수(2020)	18	59	24.67	38.13	18.2	9.2	최종합격/167.2 [컷 +15.06]
	합계: 77 [컷 +9.67]		합계: 90.2				

이 외에도 학원 모의고사 점수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저는 승부욕이 강한 편이라 점수와 석차에 연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위상미술은 수강생도 많았고 점수와 석차가 상세하게 공개됐기 때문에 상위권에 들기 위해 공부한 적이 많았습니다.

초·재수시절 모두 위상미술에서 이런저런 문풀강의를 수강하여 전공 모의점수를 확인했었는데요. 초수시절의 전공 모의점수 평균은 대략 50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실제 시험에서는 긴장과 실수 탓인지 모의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재수시절에는 비록 9월 이후 모의점수가 54점대로 떨어졌으나, 이 시기를 포함해 한 해의 평균을 계산해보면 60점이 나왔고 실제 시험에서도 이와 비슷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교육학은 꾸준히 침착 받은 경험이 없지만 스스로 채점했을 때 늘 15점 이상은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의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일회성이 아닌 5회 이상의 모의점수 평균과 실제 시험점수는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B .학력 및 경력

다음은 고등학교에서 대학원에 이르는 저의 학력 및 경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 력	-일반고 졸업 -대학교 졸업, 회화 전공(대입 실기: 석고정물수채화), 교직이수X -교육대학원 졸업, 미술교육 전공, 중등교원자격증 취득
경 력	-시간강사 및 기간제 교사 경력 없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부시절에는 임용에 뜻이 없었습니다. 뜻이 있었다 하더라도 1~2학년 재학 중에는 성적도 처참해서 교직이수를 신청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학부시절 내내 전공과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방향을 많이 하였고 졸업 이후 미술 이외의 분야를 공부하다 교육대학원에 뒤늦게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임용 준비를 천천히 하게 되었으며, 경력 역시 임용에 도움 될 만한 경험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있어봤자 초등학교 돌봄교실 봉사경력 정도입니다.

## C .학습정보

다음은 공부하면서 수강했던 강의나 활용했던 자료, 학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적은 것입니다.

		전공	교육학
학 원 수 강 강 의	대학원	-2016년 위상 일반이론(복습X, 인강) -2016년 김성희 전공이론(복습X, 인강) -2017년 위상 영역별 기출분석(복습X, 인강)	×
	초수	-2019년 위상 일반·심화이론(인강), 78월(직강)·910월 문풀(인강) -2019년 위상 2차 3670 만점반(직강)	-2019년 전태련 교육학 기본이론(인강), 파이널 문풀(인강)
	재수	-2020년 위상 일반·심화이론(인강), 56·78·910월·파이널 문풀(직강)	×
학 습 자 료	기본서	2020 위상 전공미술	2019 전태련 교육학
	필독서	○	×
	교과서	○	×
	용어사전	○	×
	문제풀이	○ (위상 문풀 전체, 최단 문풀 일부 참고)	○ (전태련 문풀)
	기타	학부, 교육대학원 강의 자료, 2015개정 교육과정	교육대학원 교육학 강의 자료, 행복한 교육, 서울시 주요 업무정책
학 습 방 식	서브노트	△ (백지쓰기 활용)	△ (직접제작×, 전태련 핵톡 활용)
	단권화	○ (위상 기본서 바탕+심화+기타 학습자료)	×
	스터디	○ (온·오프라인, 인출 위주)	○ (온라인, 인출 위주)
	백지쓰기	○	○
	문제풀이	○	○
학습전략 참고	장지연 선생님의 월별 학습계획, 공단기 전효진 공부법, 유튜버 유기농, 이윤규 변호사, 아는 변호사, 한일사시합격자 조우상		
학습장소	집		

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파트에서 따로 설명할 것 입니다. 이 외에 임용공부에 도움이 됐던 것은 '학습자료' 가운데 '학부, 교육대학원 강의 자료'입니다. 학부시절에 임용을 목적으로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고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 또는 전공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수강했던 강의들이 의도치 않게 전공이론

의 맥락을 이해하고 중요도를 파악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육대학원에서 개설됐던 전공·교육학 강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때문에 아직 대학교 또는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이신 분들이라면 학교에서 개설 되는 강의를 눈여겨보시고 그 강의에서 어떤 시험문제가 출제되며 교수님께서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때의 자료로 2019년 고개지 화론 문제, 2020년 도석인물화 상징 문제, 전 함포템킨 문제 등을 풀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임용합격을 위해 반드시 이러한 강의를 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매일 공부하는 기본이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보충자료의 역할이기에 이는 필독서, 사전, 인터넷, 교과서, 타 강사 자료, 강사님께 질문하기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습니다.

## II .1차 합격과 불합격의 원인분석

먼저 합격하신 다른 분들의 합격수기와 여러 공부 유튜버들의 영상을 참고하면서 시험 합격에도 정석이 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다이어트의 정석이 꾸준한 식이조절과 운동이듯이 시험 합격 역시 중요한 기본이론의 이해와 암기, 그리고 꾸준한 반복이 정석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걸 깨닫고 실천한 것은 재수 때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준비가 부족해 불합격했던 초수시절과 준비를 갖추어 최종합격한 재수시절을 비교하여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차이를 1차 시험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A .초수) 1차 불합격의 원인분석

학습측면	태도측면
①절대적인 공부 시간의 부족	①근거 없는 자만과 고집
②효과적인 학습전략의 부재	② <b>합격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b>
③ <b>기본이론에 대한 이해 및 암기, 반복 부족★</b>	③불규칙하고 불성실하며 즉흥적인 태도
④자기주도적인 학습계획의 부재	④직감에 대한 지나친 확신
⑤개념 암기 및 취지파악 부족	⑤작은 것에 대한 집착

초수시절 1차를 탈락하고 2월에 다시 재수준비를 하던 시점에, 스스로에게 무엇이 부족했는지 반추를 했고 그 결과 불합격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을 위 표와 같이 추려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들을 고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서 실패 원인을 각 요소별로 하나씩 길게 설명하고 싶으나 다음 파트에서도 설명이 될 것 같아 생략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되돌린다면 반드시 1월부터 기본이론(위상 일반이론)의 상수준을 빠짐없이 암기할 것이며 합격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격을 위한 가장 큰 뼈대이며 여기서 파생되는 줄기들은 나머지 요소들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저에게는 그 뼈대부터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가령 학습측면에서 절대적인 공부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이론의 이해와 암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며, 효과적인 학습전략이 필요한 이유역시 효과적으로 그 이론을 이해하고 암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머지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몇 명의 강사를 들어야 하나?' '서브노트와 단권화 중에 무엇을 할 것인가?'와 같은 고민은 부차적인 고민에 불과하며, 이러한 고민을 하기 전에 본인이 상수준의 이론을 추려낼 수 있는지, 그러한 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언어능력과 사고를 가졌는지, 가지지 못했다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리고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이론을 암기했을 때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민에 대해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있다면 어떤 강사를 선택해도 1차 시험에 합격할 것입니다.

또한 태도측면에서도 합격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이 부족하다면 공부하면서 쉽게 좌절하게 되고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어차피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안과 나태함은 시야를 좁게 만들고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어 중요한 것보다 작은 것에 집착하게 하고 타인의 행동과 정보에 쉽게 휘둘리는 등, 자신만의 중심을 잃게 만듭니다. 이 부분은 정말 뼈하지만 당시의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쉽게 간과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당시의 저는 합격을 위한 학습과 태도가 갖춰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 B .재수) 1차 합격의 원인분석

학습측면	태도측면
①절대적인 공부시간 확보	①공격적이며 단순하게 생각&행동
②자기주도적으로 체계적인 공부계획 설정	②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한 심리 제거 노력
③상수준의 지식을 확실하게 이해·암기·반복	③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활용
④꾸준히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부전략 확보	④규칙적인 생활패턴 설정
⑤개념 암기 및 문제의 취지파악 연습	⑤합격 확신
⑥시험의 방향성 이해	⑥끊임없이 의심하되 자신감 갖기

재수시절의 저는 앞서 불합격의 원인분석에서 언급되었던 고민들에 대해 답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즉, 스스로의 상태에 대한 진단을 내렸고, 그 개선방안을 늦어도 3월이 되기 전에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저 자신의 반성도 있었지만 초수 시절 전공&교육학 강사님이 수업에서 알려주시는 조언과 여러 공부 유튜버들의 영상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재수시절에 여러모로 의지가 되었던 영상은 공단기 전효진 강사님의 ‘독하게 합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전효진 강사님은 ‘공격적인 자세’로 공부하는 것을 강조하셨는데요. 저도 능동적인 태도로 공부를 이겨 보겠다는 마인드 세팅을 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부분이 나오더라도 겁먹지 않고 어떻게든 이겨내서 올해는 합격도 하고 수석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실 때는 한없이 쉬어야 하는 느슨한 성격이어서 스스로를 채찍하며 더욱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기본적인 바탕으로 삼았고, 그 다음으로 학습측면에서 총 세 가지를 최우선으로 신경썼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인이 상수준의 이론을 추려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2019년도 시험에서 기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못 풀었던 기억 때문에 올해는 반드시 기본을 챙기겠다고 다짐했고, 위 고민은 이러한 다짐에 뒤따라왔던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광범위한 전공 및 교육학 이론 가운데서 자신의 노력만으로 상수준을 추려낼 수 없다고 결론지었기에 학원 강사님이 짚어주시는 부분을 믿고 참고했습니다. 또한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빈출영역이 무엇인지 파악했고, 학부시절의 강의 자료에서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던 부분도 무엇이었던지 다시 확인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언어능력과 사고를 가졌는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저는 제 자신이 이해가 느리며 한 번 들었던 이론은 일 년이 지난 뒤 다시 봤을 때 이해가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 수능 언어영역에서 좋지 못한 성적도 받았었고 지능지수도 낮은 사람이라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때문에 이론의 이해를 위해서 여러 시도를 했고 이러한 시도는 아래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방식으로 이론을 암기했을 때 효과적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저 같은 경우 초수시절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글을 눈으로 읽는 것보다 손으로 쓰거나 입으로 말하면서 설명했을 때 암기가 잘 됐으며, 수학공식처럼 어떤 이론의 원리를 ‘이해’했을 때 암기가 쉬웠고 암기한 내용을 자주 반복해서 들여다보아야 까먹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암기, 복습, 회독 계획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에게 필요한 학습과 태도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2월까지 끝낸 뒤 일 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다음으로는 위 표에서 언급된 요소들을 학습측면, 태도측면으로 나눠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1 .학습측면

사실 ①~④번의 필요성은 너무나 당연해서 모두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⑤,⑥번을 챙기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용공부는 학자가 되기 위한 공부라 아니라 합격을 위한 공부이기 때문에 버릴 건 버리고 시험합격에 필요한 내용을 최우선으로 잡아 꾸준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어떤 영역을 다루며 이를 어떤 언어를 사용하여 출제하는지 파악해야 본인이 알고 있는 이론을 적용해 풀 수 있습니다.

### ①절대적인 공부시간의 확보

저는 타고난 지능지수가 높은 편도 아니며 이해가 느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공부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또한 초수시절에는 순공 5~7시간 정도로 공부했었기에 이보다는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나갔던 토요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일에는 늦어도 아침 9시에 책상에 앉아 밤 12시 까지(또는 1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공부한 것 같지만 점심과 저녁 시간을 2시간씩 썼기 때문에 늦게 잠든 편입니다. 그래서 아무시간에나 공부할 수 있는 집에서 공부를 했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씻지도 않고 바로 책상에 앉아 교육과정 백지쓰기를 했습니다. 준비 및 이동시간이 단축되었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는 불결했으나 공부를 시작하기가 굉장히 편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오전(8~12시), 오후(14시~18시), 저녁 3시간(20시~12시)씩 공부를 목표로 했고, 하루에 최소 순공 7시간은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때 타이머로 순공시간을 체크하며 공부했고 하루에 최대 9시간(순공)까지만 공부하려 했습니다. 순공 10시간이 넘어가면 다음날 피곤해서 집중이 안됐기 때문입니다. 대신 일요일은 무조건 쉬었고 식사시간에도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쉴 때는 쉬어야 된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10월부터 식사시간을 한 시간으로 줄이고 순공시간을 더 확보하려 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11월까지 주50시간을 넘겨서 공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며 평균적으로 주35~45시간 정도로 공부하였습니다(인강 및 직장 시간 제외).

### ②자기주도적으로 체계적인 공부계획 설정

초수시절에는 스터디원들의 공부계획을 따르거나 장지연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계획을 무비판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단위별로 세분화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재수시절에는 스스로의 수준에 맞는 세분화된 계획이 필요해 일 년 계획은 위상미술의 연간 커리큘럼을 따랐고, 월간계획은 장지연 선생님이 두 달 간격으로 알려주시는 계획을 참조하되 제 사정에 맞게 변형시켰습니다. 그래서 먼저 학원 일정에 따른 두 달 단위의 계획을 크게 세웠고, 일주일, 하루 단위로 공부계획을 세분화했습니다. 교육학도 강의를 듣지는 않았지만 상반기에는 이론을 공부했고 9월부터 모의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 예) ■ 3-4월 계획

날짜	전공	전공예습	교육학
3/9	미교론	서미사	교육과정
3/16	미교과	서미사	교수학습
3/23	표현-회판조	한미사	교수학습
3/30	표현-디자인	감상, 동미사	교육평가
4/6	표현-공예	표현-회판조	생지상
4/13	감상, 동미사	표현-디자인	교육행정
4/20	한미사	표현-공예	교육심리
4/27	서미사	미교과	교육사회
5/4	서미사	미교론	교육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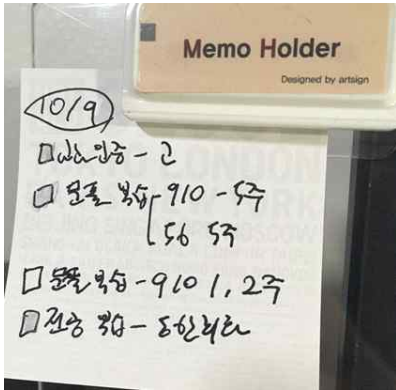
이 표는 2019년에 실제로 사용했던 계획표입니다. 표를 보시면 3·4월에는 위상 심화이론을 수강하며 총 2회독(전공)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표의 '전공'은 강의 순서에 따랐고, '전공예습'은 강의 순서를 뒤집어서 공부하려 했던 계획입니다. '교육학'은 두 달에 1회독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처럼 두 달 단위의 계획을 먼저 세우고 일주일 단위로 큰 영역을 설정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날짜'는 온라인 밴드로 진행했던 백지쓰기 인출 스터디의 인출 날짜입니다. 1주일 단

위였으며 당시에는 인강을 들었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을 기준으로 일주일 동안 공부한 범위를 인출해 인출하는 온라인 스터디를 진행했었습니다. 자세한 저의 계획표는 III장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오전 (08-12)	핵심역량	중	고-일선	고-미창	고-미감비	문풀 -전공 -교육학	룰루♥
	전공인강	전공인강	전공예습 (상수준)	전공복습 (상, 중)	교육학		
오후 (14-18) (20-23)	복습 (상수준)	복습 (상수준)					

다음으로는 주간 및 일일 단위계획입니다. 위 계획역시 3·4월에 실제 사용했던 것입니다. 위상 수강생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로운 강의가 시작될 때마다 장지연 선생님께서 공부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저는 그 계획을 참고하되 저의 사정에 맞게 변형시켰습니다. 위 표에서 나타난 오전·오후 공부시간은 희망사항이라 실제 공부시간과는 일치하지 않았으며 당시 심화이론까지는 인강으로 수강했기 때문에 토요일에는 인출 스티커로 대신했습니다. 참고로 월~금요일 아침에는 교육과정 백지 인출을 하였고 온라인 밴드로 인증하였습니다. 때문에 위 표에서 가장 밝은 회색영역은 그 날 인출해야하는 교육과정 영역을 의미합니다.



왼쪽의 사진은 일일계획 중 세부적인 계획을 체크리스트로 적은 것입니다. 매일 하루 공부를 마무리하며 다음날 체크리스트를 미리 적어 사진처럼 책상위에 붙여두었고, 이를 지켜가면서 공부했습니다.

사진은 2019년 10월 9일자 체크리스트이며 이때 교육과정 백지 인출, 문제풀이 복습계획, 전공이론 복습계획이 적혀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느슨한 성격의 사람이라 의식적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하기 위해 목표치를 높게 설정했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늘 모든 계획을 지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했고 일일 순공시간보다 일일계획 지키기에 더 집중하였습니다.

이처럼 큰 단위의 계획은 책상 위 벽에, 하루 계획은 메모지에 체크리스트로 적어 책상에 붙여두고 순공시간과 복습계획을 다이어리에 기록해가며 공부했고, 정해진 계획을 반드시 따르는 기계처럼 공부하려 했습니다. 계획이 미뤄질 경우에는 일주일을 넘기지 않는 한에서 지키도록 노력했으며 가끔씩 일요일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을 활용한 날은 정말 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계획이 미뤄지면 다른 날에 얼마나 힘든지 경험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체크리스트에 쫓기듯이 공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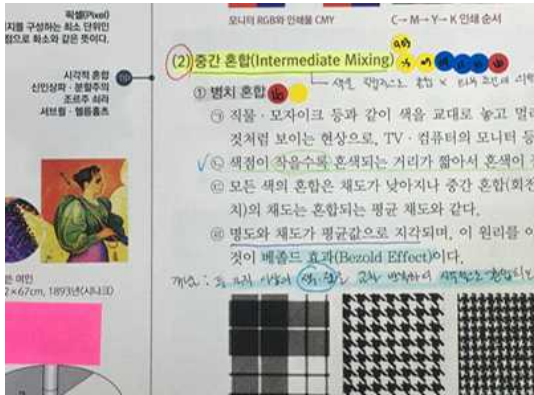
이렇게 계획을 세분화하고 강박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3월부터 전 영역을 한 달에 1회독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초수시절에 했던 공부의 연장이었기 때문에 3월부터 저렇게 공부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 ③상수준의 지식을 확실하게 이해·암기·반복

#### - 상수준의 지식: 기출 빈도와 영역 파악하기

초수시절에는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하수준에 치중하거나 기출빈도가 높은 영역은 이미 잘 안다고 생각하여 대충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중하수준에 골고루 시간을 투자해 공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을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수하며 알게 되었고, 이것만 완벽하게 챙겨도 1차 컷은 통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상·장지연 선생

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영역과 기출빈도가 높은 영역을 상수준으로 잡아 가장 많은 시간투자를 했습니다. 특히 기출빈도를 분석해 기본서에 스티커를 붙여가며 중요도를 쉽게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아래 예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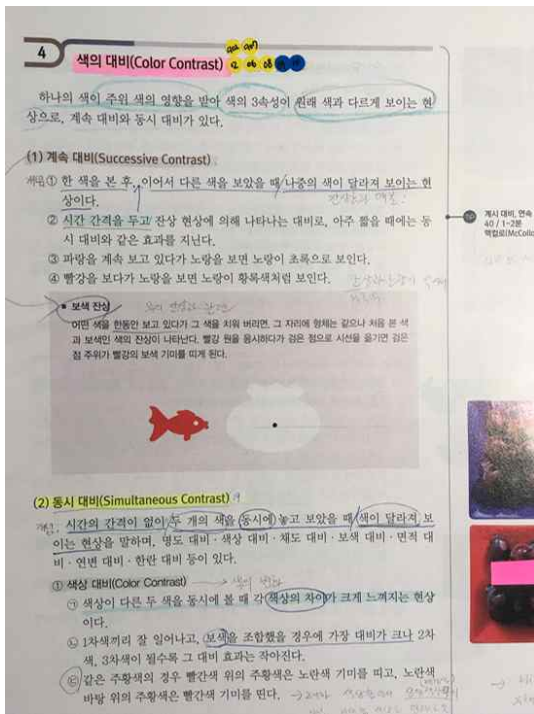
이 방법은 다른 분의 합격수지에서 참고했던 방법입니다. 동그란 스티커를 색상별로 구분하여 기출빈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노란색은 2008년까지의 기출, 파란색은 20013년까지의 객관식 기출, 빨간색은 14년 이후의 기출, 흰색스티커는 기출에서 언급만 된 경우로 구분하여 스티커에 연도를 적어 기본서에 붙여두었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기본서에서 어떤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지, 어떤 문제가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책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색의 대비'는 과거 빈출되었던 영역이었으나 최근에는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언제든 열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동시 대비'는 19년도 문제에 언급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곧 출제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물론 색의 대비가 기초적인 영역이긴 하나 오히려 쉽기 때문에 방심하고 지나칠 수 있어서 이러한 작업이 기본을 놓치지 않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학부시절에 이론 강의를 들으며 교수님이 강조하신 내용도 책에 표시하여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교육학도 전태련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영역, 서울시 주요업무정책과 관련된 영역, 행복한 교육에서 화두로 다루는 부분을 상수준으로 표시하고 공부하였습니다. 다만 교육학은 기출분석을 스스로 하지는 않았습니니다. 14년도 이후 기출문제만 눈으로 보았고, 전태련 교육학의 핵심특독에 기출연도가 표시되어 있어서 그것을 참고하였습니다.

이렇게 전공, 교육학의 중요도를 파악한 뒤, 매번 공부를 시작할 때에는 책의 순서에 상관없이 상수준부터 공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서양 현대미술사를 공부하는 날에는 팝아트와 미니멀리즘부터 공부하고 나머지 부분을 공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기본적인 이론이 잡혀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만, 지나치게 책 순서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 항상 '왜?'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초수시절에도 그랬지만 재수시절에도 위상 기본서와 강의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이때 이해가 안 될 경우 강사님께 질문 or 관련 필독서 or 김성희 선생님 기본서 or 교과서 or 학부 강의 자료 or 용어사전 or 인터넷 검색 or 스터디원에게 질문하기 등의 방법을 활용해 완전히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따라서 보충이 필요한 부분은 따로 메모해 기본서에 채워가며 단권화를 했습니다. 즉,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어느 영역인지 판단해서 한 영역이라도 구멍 없이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강의를 듣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배운 내용을 혼자서 이해하는 시간을 더 늘리려 했습니다. 능동적으로 공부해야 이해와 암기가 더 잘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용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초·재수시절에는 여러 명의 강사 강의를 수강하지 않고 전공은 위상, 교육학은 전태련 강의만(초수 때) 수강했습니다. 강의를 듣는 것은 좋지만 듣고 난 이후에 배운 내용을 혼자서 생각해보며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확실한 이해를 돕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강의를 수강할 때는 선생님의 말씀을 농담이라도 귀 기울여 듣고 필기하였고 판서 역시 모두 따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들었던 저의 생각도 필기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책의 맥락이 이해되고 그 페이지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서에서 '뒤샹은 현대미술의 흐름을 바꿨다'라는 문장이 나온다면 '왜?'라고 되물어보면서 그 다음 문장을 읽거나, 다음 문장에 그러한 이유가 없을 경우 관련 내용을 찾아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해결이 되었을 때 다시 복습하면서 또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되었는지 점검하였습니다. 따라서 가만히 앉아 오랜 시간동안 수동적으로 강의만 듣는 것은 재수시절에 최대한 지양했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스스로 질문해가며 이론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능동적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만약에 다양한 자료가 부족하신 분들이나 시간이 없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선택한 강사님을 최대한 귀찮게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의문이라도 반드시 적어서 강사님께 질문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갖춘다면 본인의 이해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도 초수시절과 다르게 재수시절에는 직강을 나가며 강사님이나 스터디원에게 질문을 자주 하였습니다.

#### -암기: 쓰거나 말하며 외우기

이해와 암기는 너무나 당연한 요소이지만 특히 암기가 충실히 되어야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으로 읽는 암기방법보다 손으로 쓰거나 입으로 말하면서 암기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손으로 쓰면 1차 시험에 도움이 되고 입으로 말하면 2차 시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단순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때 모든 내용을 손으로 써가며 공부하지 않았고, 중요한 키워드나 개념, 배경, 특징 정도만 써가며 암기했습니다. 정말 외워지지 않는 것은 두문자법으로 암기하였고, 포스트잇에 적어 책상 주변에 붙여두고 종종 보았습니다. 포스트잇에 적을 때는 외우고 싶은 단어나 내용을 그대로 써두기 보단 질문으로 적어서 한번 생각해보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르네상스 3대 거장의 이름을 외우고 싶을 때 포스트잇에 '르네상스 3대 거장의 이름은?' 이라고 적어두어 생각을 하게끔 했습니다. 단순히 '르네상스 3대 거장: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라고 적어두면 오히려 그 포스트잇이 너무 익숙해져서 신경도 안 쓰였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쓰기 싫을 때에는 입으로 설명해가며 암기했습니다. 이때도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답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마치 '반지의 제왕'의 골룸과 스미골처럼 혼자 묻고 답하며 설명하듯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증얼거리며 암기하느라 교육계와 상관없는 제 형제도 잠재적 교육과정과 영교육과정의 개념을 자동으로 인출하게 됐습니다.

#### -반복: 1, 4, 7 복습법

이해와 암기가 됐다면 이를 1차 시험 날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1,4,7 복습법'을 활용해 꾸준히 복습했습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활용한 공부법인데요. 저는 이 방법으로 하루에 학습한 내용을 한 달에 4번 정도 복습했습니다. 방법은 아래 ④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복습주기에 따라 복습할 때는 상수준은 쓰거나 말하면서 복습했고, 중하수준은 눈으로 빠르게 읽으며 복습했습니다. 이때 인출이 잘 안 되는 부분은 다시 써보며 암기하고 반복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3월부터 한 달에 전 영역을 최소 1회독(상중수준 위주)했으며 10월 말부터 11월에는 대략 1주에 전 영역 1회독을 했습니다. 다만 회독 수 보다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모든 영역을 반복하는데 신경을 썼습니다. 작은 복습들까지 계산한다면 회독 수가 매우 많아지고 그 계산이 딱히 의미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큰 복습 계획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④꾸준히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부전략 확보**

저는 수능공부를 했던 고3 시절에도 복습이 무엇인지, 노트필기를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공부했고, 학부시절에도 벼락치기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볼펜은 늘 검은색 볼펜만 썼으며 연필만 함께 사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초수시절에는 여기에 빨강색 펜과 형광펜을 추가하였으나 각자의 역할이 불분명해 무질서한 필기로 책을 더럽혔습니다. 물론 글씨체 역시 누가 봐도 악필이라 더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공부전략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2019년 1·2월에는 유튜브에서 변호사나 의대생 등, 공부 좀 했던 사람들의 공부전략을 찾아보았습니다. 또한 임용합격수기를 5편정도 선택하여 인쇄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틈틈이 확인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1,4,7 복습법, 형광펜 활용법, 인출스터디 활용, 목차를 질문화하여 백지쓰기, 기본서에 단권화하기 였습니다.

먼저 **1,4,7 복습법**입니다. 전공과 교육학 모두 복습은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활용한 방법인데요. 그날의 진도를 나가고 1일 뒤, 4일 뒤, 7일 뒤에 복습하는 방법입니다. 더 세부적으로는 0, 1, 4, 7, 14, 28일의 주기로 복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미교론을 공부했다면 그날 바로 복습을 하고(0일), 화요일에 복습하며(1일 뒤), 금요일에 또 복습을 합니다(4일 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또 복습을 하고 2주 뒤에 또 복습을 합니다. 복습이 거듭될수록 복습시간을 점점 줄여나갔구요. 저의 상황에 맞게 주기는 조금씩 바꿨지만, 다음날 복습은 반드시 지켰고 한 달에 4번 정도 복습하도록 주기를 설정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유튜브에서 '유기농 공부법'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형광펜 활용법**은 기본서의 구조를 쉽게 시각화해서 암기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모든 책은 목차가 있는데요. 큰 목차, 중간 목차를 다른 색의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키워드도 다른 색의 형광펜으로 표시해 기본서의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또한 문제풀이의 답지도 색을 다르게 하여 표시했는데요. 틀린 답, 모르는 답 등으로 구분하여 오답 정리 시 내가 뭘 모르는지 한눈에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학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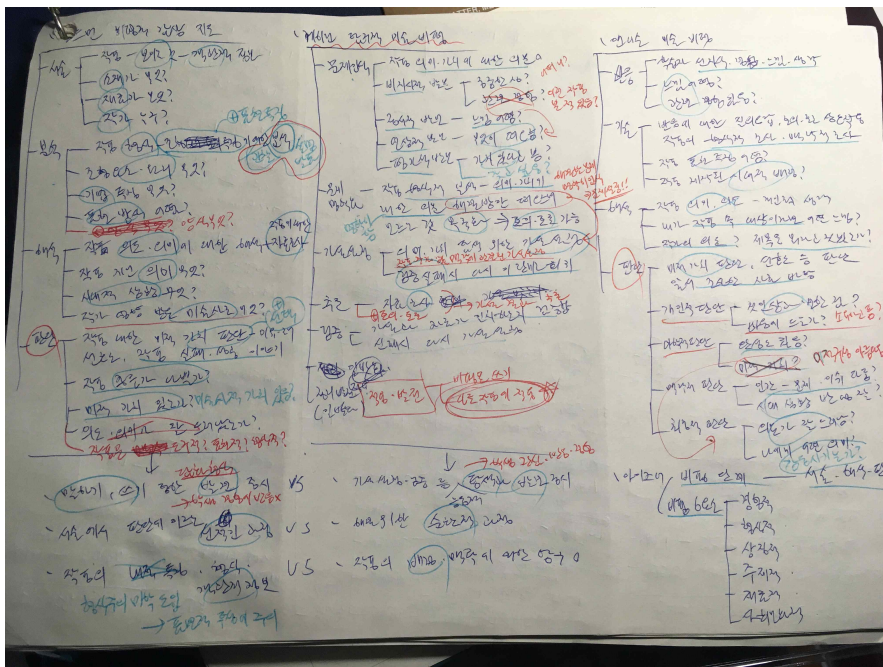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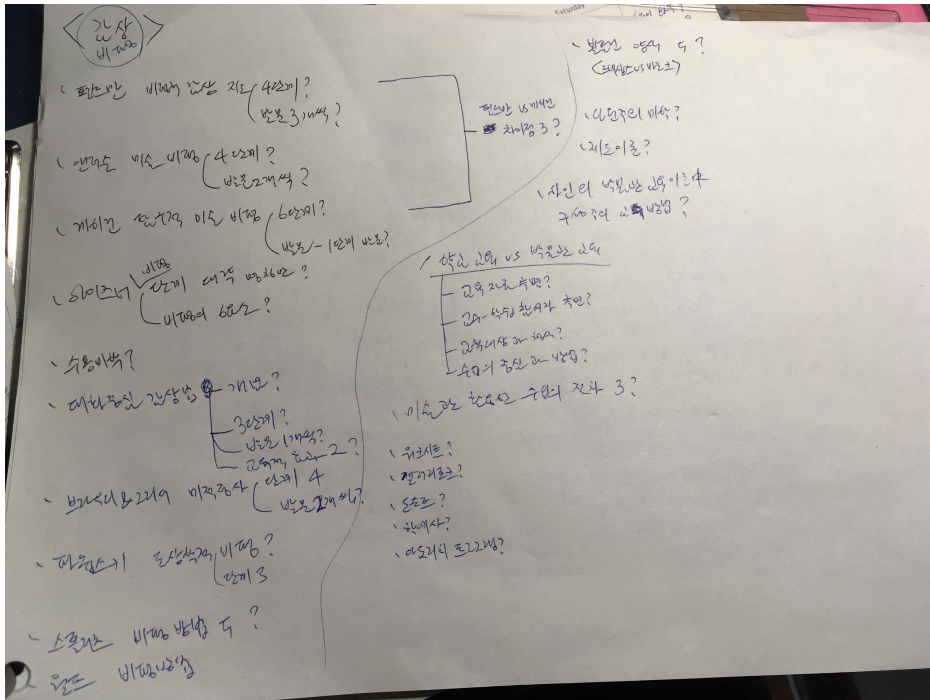
**인출스터디 활용**은 복습 및 긴장감 형성에 도움이 됐습니다. 같은 스터디원들과 매일 교육과정 백지쓰기를 하여 밴드에 인증했고, 전공과 교육학도 범위를 정해 일주일에 한 번씩 인출하여 밴드에 인증했습니다. 4월까지의 스터디원들이 문제를 5개씩 내서 백지에 풀어보고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고, 그 이후부터는 영역만 맞춰서 백지쓰기로 인출해 인증했습니다. 또한 10월부터 전화로 위상미술 5,6월, 9,10월 문풀을 다시 풀어보는 짝스터디도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4월까지 냈던 문제는 거창하게 문서파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짧은 문장으로 만들어서 각자 댓글로 간략히 달 수 있게 했습니다. 아래 제가 작성한 문제의 예시입니다. 교육학 문제는 전태련의 쓱쓱문제를 활용하였습니다.

<p>[교육학 6주차] - 4월 8일 교육행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행정의 원리에서 기회균등의 원리, 자주성 존중의 원리, 지방분권의 원리, 민주성의 원리를 설명하십시오</li> <li>2. 블룸의 기대이론에서 제시하는 동기 촉진 요인 3가지를 설명하십시오.</li> <li>3. 분산적 지도성의 개념과 이에 근거한 학교경영을 하기 위해 교장이 발휘해야 하는 지도성 전략 3가지를 제시하십시오.</li> <li>4. 학습조직으로서의 학교가 지니는 의미를 설명하고 이를 구축하기 위해 요구되는 원리 3가지를 제시하십시오.</li> <li>5. 목표관리기법의 의의(개념)를 쓰고, 긍정적 효과와 한계점을 각각 3가지씩 서술하십시오</li> </ol>	<p>[전공 6주차] - 4월 8일 감상, 동미사, 한국회화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히건의 비평적 탐구 단계를 각 단계의 명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펠드먼의 비평적 담화와 비교하여 차이점을 3가지 설명하십시오.</li> <li>2. 중국 북송의 미법산수와 남송 마하파 화풍의 특징을 각각 설명하십시오.(소재, 준법 등등)</li> <li>3. 중국 송대 황휴복이 주장하는 일품화의 요소를 설명하고, 중국 청대 석도가 주장하는 일획론의 의미를 설명하십시오.</li> <li>4. 불화에서 아미타불, 관음보살, 지장보살이 지닌 특징을 설명하십시오(각 부처or보살이 지닌 의미와 일반적으로 함께 표현되는 지물, 지물이 지닌 상징성 등/없으면 생략).</li> <li>5. 조선 초기, 중기, 후기, 말기 산수화의 전개과정을 간략히 서술하십시오. (예: 중국 청대 초기에는 고법을 계승하는 정통파와 그렇지 않은 창신파가 등장)</li> </ol>
---------------------------------------------------------------------------------------------------------------------------------------------------------------------------------------------------------------------------------------------------------------------------------------------------------------------------------------------------------------------------------------------------------------	------------------------------------------------------------------------------------------------------------------------------------------------------------------------------------------------------------------------------------------------------------------------------------------------------------------------------------------------------------------------------------------------------------------------------------------------------------------------------------------------------------------------------

백지쓰기나 문제를 낼 때 제가 활용한 것이 목차를 질문화한 것입니다. 많은 공부고수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차암기였는데요. 저는 이것 변형하여 A4용지에 기본서의 목차 중 중요한 부분을 추린 다음, 끝에 '?'를 붙여 간단한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목차가 '한국미술사-조선시대-후기-회화-등장배경, 특징, 주요작가'의 위계로 구성됐다면 '조선시대 후기 회화의 등장배경은?', '조선시대 후기 회화의 특징 3가지?' 이런 식으로 질문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목차질문을 전 영역마다 만들었고 백지쓰기나 스터디원에게 문제를 낼 때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출한 것에 틀린 내용이 있는지 빨간펜으로 체크했고, 이를 잘 모아줬다가 복습할 때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는 따로 만들지 않았고, 백지쓰기 했던 종이로 대체했습니다. 창피하지만 아래 예시입니다. 저처럼 필기를 예쁘게 못하셔도, 예쁘게 정리된 서브노트가 없어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본서에 단권화하기입니다. 단권화를 선택한 이유는 전술한 '이해'파트 때문입니다. 기본서의 내용만으로 이해가 된다면 참 좋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를 참고했고, 위상 전공미술 기본서를 4권으로 분권한 뒤(미교론·감상, 서미사, 동미사, 표현) 3공으로 뚫어 링을 끼우고 다른 자료를 덧 붙이는 방식으로 단권화 했습니다. 이때 참고한 자료는 '이해'파트에 언급했는데요. 이 자료들의 전 내용을 모두 발췌하지 않았고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 포스트잇으로 붙이거나 작은 종이에 써서 덧붙였습니다.

특히 위상심화이론도 기본서에 단권화했습니다. 기본서에 더 많은 내용과 도판이 있고, 기출빈도 역시 기본서에 표시해두어서 심화프린트만 보면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 같은 경우에는 심화프린트만 보며 공부할 때 기본서를 자주 참고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효율적인 시간소모를 없애고자 기본서에 심화 내용을 단권화했습니다.

교육학은 전태련 기본서와 핵심톡톡을 자주 보았고 이외에 다른 자료를 열정적으로 찾지 않았기 때문에 거창하게 단권화를 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⑤개념 암기 및 문제의 취지파악 연습

재수시절에 위상 강의를 다시 들으며 느낀 것은 개념 암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장지연 선생님께서도 강조하는 것입니다만, 초수시절에는 으레 간과하며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개념 암기가 필요한 이유는 이론의 이해를 위한 것도 있지만, 개념에서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고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에도 아는 개념을 생각하며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9년 2월~4월의 전공 강의를 수강하는 동안 개념 암기에 신경을 썼고 이러한 노력은 5월부터 시작된 문제풀이 강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 가끔씩 전공 기본서에서 애매하게 기술된 개념이 나왔을 때 기출문제, 사전 등을 참고하거나, 3~4권의 교과서를 참고하여 공통된 키워드를 찾은 뒤, 그 키워드 중심으로 다시 개념을 작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서에 '르네상스 양식'에 대한 개념이 모호할 경우, 여러 교과서의 미술사 단원(특히 맨 마지막 페이지의 연표부분)에서 '르네상스 양식'을 어떤 용어로 설명하는지 찾아봤고 공통된 키워드가 '그리스·로마 문화의 부활', '인간성 회복', '해부학', '원근법·명암법', '과학', '사실적 표현' 과 같이 추출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르네상스 양식은 그리스·로마 문화의 부활을 통한 인간성 회복을 추구하며, 유화물감의 발명, 해부학, 원근법, 명암법 등의 과학적 연구를 통해 대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미술 양식이다.'로 개념정리를 했습니다. 따라서 르네상스 관련 문제풀이 시, 이 개념을 떠올려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키워드를 찾으려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취지파악 연습입니다. 사실 이론을 충분히 암기했다 하더라도 문제풀이 때 동문서답한다면 틀리게 됩니다. 따라서 개념, 표현특징, 조형적 특징, 표현방법, 등장배경, 상징, 의미 등을 요구하는 문제에 각각 어떤 답을 써야하는지 숙지해야 합니다. 초수시절에는 이를 뒤늦게 알았지만 재수시절에는 초수 때의 경험과 5·6월 문풀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취지파악을 잘 하려면 먼저 이론을 꿰고 있어야 하며 기출이나 모의고사의 모범답지를 문제와 대조시켜 보는 방법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출에서 등장배경을 묻는다면 모범답지에 '등장배경은 ~이다. 하며 서술되어 있을 것 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어떤 답이 쓰여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모든 문제에 적용시켜 보아야 합니다. 힘들어 보이지만 꾸준히 하다보면 출제자와 텔레파시를 할 수 있게 되고 빠른 시간 내에 답을 쓸 수 있게 됩니다.

### ⑥시험의 방향성 이해

시험은 결과가 중요합니다. 합격이 아니라면 공부해온 과정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출 분석과 최근 미술교육의 경향을 알아야 합니다. 국가에서 어떤 미술교사를 원하는지 알 수 있으며, 불필요한 영역을 공부하게 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기출 된 영역의 빈도를 연도별로 구분해가며 기본서에 표시해두었고, 그 영역에서 무엇을 어떻게 물어봤는지 확인했습니다. 또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언급되는 영역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어 표현파트는 제작과정의 유의사항을 묻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실제 수업에서 발생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사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표현파트를 공부할 때는 제작과정만 암기하는 것을 넘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해결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숙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

을 주의하며 공부했습니다.

또한 교과서에는 최근 미술경향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험에 나왔던 영상문제의 경우도 교과서에 일부 언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영상이나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미술에 대해 꾸준히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부할 때 이런 부분을 따로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15개정 교과서에는 영상제작 단원이 거의 모든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기본서에는 없지만 교과서와 지도서에 있는 내용은 휴대폰으로 찍어 심심할 때 보았고, 이번 시험에 나온 영상문제를 일부분 풀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기출과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을 통해 출제 방향을 예측해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강사님들이 이런 방향을 말씀해주시긴 합니다만 늘 떠먹여주시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2 .태도측면

태도측면의 경우 6가지로 나누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걱정 말고 자신의 합격을 믿으며 계속해서 공부하는 단순한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스트레스 해소나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모든 요소를 번호별로 나뉘가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경우 초수 때는 걱정과 불안이 많았고 은연중에 다음해를 기약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안 될 것 같다'는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생각한대로 1차에서 불합격했습니다. 재수하면서 '올해는 꼭 합격하겠다.'는 다짐을 했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걱정과 불안은 공부의 부족하기 때문★★★**이니 공부를 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즉, 공부하는 기계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합격수기를 쓰겠다는 마음, 수석을 하겠다는 마음, **위상·장지연 선생님이 수업 중에 쓰러지시면 내가 대신 수업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공부하며 선생님들의 판서를 빠짐없이 따라 쓰고 여러 번 반복해 써보았습니다. 또한 공부를 하면서 내가 과연 이론을 잘 알고 있는지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공부하되, 의심이 거뒀질 때는 스스로를 칭찬하며 자신감을 쌓아나갔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튜브에 올라온 **★공단지 전효진 선생님의 '독하게 합격하는 방법'★**이 멘탈 관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공격적으로 공부하는 자세와 합격을 위한 강인한 마음가짐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저 또한 그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나태해지거나, 반대로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욕구가 드는 날이면 그 영상을 다시 보곤 했습니다. ( 영상 링크: <https://youtu.be/REKwUSU8y38> )

스트레스는 운동으로 풀었습니다. 원래 꾸준히 운동을 했었고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운동 강도와 횟수만 줄였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습니다. 초수 때는 주 3회 새벽수영을 했으나 재수 때는 아침에 체력을 아껴 공부를 했고 주 2회 정도 나른해지는 점심 이후나 저녁에 야외 달리기를 했습니다. 달리기를 하면서 땀을 흘리면 살아있는 기분이 들고 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보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달리기가 스트레스 해소방법으로 최고였습니다, 이때 공부를 적게 해 죄책감이 드는 날에는 강의녹음을 들으면서 뛰었고, 공부를 너무 많이 한 날에는 신나는 노래를 들으며 뛰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순 하프마라톤 대회, 11월 초 10km 단축마라톤 대회도 출전하여 완주했습니다. 이때 얻은 성취감이 막판에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됐고 올해는 꼭 합격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또 달리기를 하면 입맛이 들고 수면의 질도 높아져서 체력관리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물론 달리기로 해결되지 않는 슬럼프가 찾아온 적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 7월부터 슬럼프가 찾아왔는데요. 이때는 좋아하던 만화책도 보고 최신개봉영화도 보는 등 저를 조금 내려놓았고, 일일 순공 7시간 정도는 했지만 질 높은 공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 시기에 옛날에 읽었던 농구만화책 '슬램덩크'를 다시 완독하며 등장인물들을 본받아 나 역시 포기하지 않겠다고 억지로 세뇌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다시 집중하여 공부했습니다.

이처럼 이 시험은 건강한 정신과 체력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환경에 민감하고 생각이 많은 타고난 유리멘탈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단순하게 생각하며 기계처럼 공부하려고 노력했고, **공부하는데 가장 쓸모없는 생각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말 또한 가급적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려고 했고 다이어리에도 공부가 싫다는 말은 쓰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1차 까지는 그랬습니다). 따라서 공부전략 이외에도 각자의 멘탈 관리를 위한 최선의 전략을 반드시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III .1차 시기별 계획

사실 중요한 내용은 지금까지 모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 장에서는 재수시절을 기준으로 시기별 계획 및 공부에 대해 제가 만들었던 계획표를 첨부하여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다른 분들의 합격수기에서 시기별 공부계획을 참고하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참고로 계획표는 3월부터 10월까지만 제작하였습니다.

월	내용																																											
1월	-공립 1차 탈락, 위탁 사립 최종면접까지 갔으나 탈락 후 방향, 휴식, 재충전 -유튜브에서 공부전략 탐색																																											
2월	-위상 일반이론(인강) 몰아서 수강, 15개정 교육과정 암기 -교육학은 하지 않음 -유튜브에서 공부전략 탐색 -부족한 영역의 필독서 구입 후 읽기 시작(조주연 「현대미술강의」)																																											
3월	<table border="1"> <thead> <tr> <th>날짜</th> <th>전공</th> <th>전공예습</th> <th>교육학</th> </tr> </thead> <tbody> <tr> <td>3/9</td> <td>미교론</td> <td>서미사</td> <td>교육과정</td> </tr> <tr> <td>3/16</td> <td>미교과</td> <td>서미사</td> <td>교수학습</td> </tr> <tr> <td>3/23</td> <td>표현-회판조</td> <td>한미사</td> <td>교수학습</td> </tr> <tr> <td>3/30</td> <td>표현-디자인</td> <td>감상, 동미사</td> <td>교육평가</td> </tr> <tr> <td>4/6</td> <td>표현-공예</td> <td>표현-회판조</td> <td>생지상</td> </tr> <tr> <td>4/13</td> <td>감상, 동미사</td> <td>표현-디자인</td> <td>교육행정</td> </tr> <tr> <td>4/20</td> <td>한미사</td> <td>표현-공예</td> <td>교육심리</td> </tr> <tr> <td>4/27</td> <td>서미사</td> <td>미교과</td> <td>교육사회</td> </tr> <tr> <td>5/4</td> <td>서미사</td> <td>미교론</td> <td>교육철학</td> </tr> </tbody> </table>				날짜	전공	전공예습	교육학	3/9	미교론	서미사	교육과정	3/16	미교과	서미사	교수학습	3/23	표현-회판조	한미사	교수학습	3/30	표현-디자인	감상, 동미사	교육평가	4/6	표현-공예	표현-회판조	생지상	4/13	감상, 동미사	표현-디자인	교육행정	4/20	한미사	표현-공예	교육심리	4/27	서미사	미교과	교육사회	5/4	서미사	미교론	교육철학
	날짜	전공	전공예습	교육학																																								
	3/9	미교론	서미사	교육과정																																								
	3/16	미교과	서미사	교수학습																																								
	3/23	표현-회판조	한미사	교수학습																																								
	3/30	표현-디자인	감상, 동미사	교육평가																																								
	4/6	표현-공예	표현-회판조	생지상																																								
	4/13	감상, 동미사	표현-디자인	교육행정																																								
	4/20	한미사	표현-공예	교육심리																																								
	4/27	서미사	미교과	교육사회																																								
5/4	서미사	미교론	교육철학																																									
-위상 심화이론강의 수강 -한 달에 전공 1회독 목표 -두 달에 교육학 1회독 목표 -상수준 위주의 학습 및 개념 암기 -교육과정 암기 -키워드 추출, 목차, 기출빈도 정리 -개념, 배경, 특징 구분하며 읽기 *'전공'은 인강 계획에 따름 *'날짜'는 인출인증날짜, 일주일 단위 (1주, 2주, 3주... 로 변환가능)																																												
3월 ~ 4월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월</th> <th>화</th> <th>수</th> <th>목</th> <th>금</th> <th>토</th> <th>일</th> </tr> </thead> <tbody> <tr> <td>오전 (08-12)</td> <td>핵심역량</td> <td>중</td> <td>고-일선</td> <td>고-미창</td> <td>고-미감비</td> <td>문풀 -전공 -교육학</td> <td rowspan="3">룰루♥</td> </tr> <tr> <td>오후 (14-18)</td> <td>복습 (상수준)</td> <td>복습 (상수준)</td> <td>전공예습 (상수준)</td> <td>전공복습 (상, 중)</td> <td>교육학</td> <td rowspan="2">전체복습</td> </tr> <tr> <td>(20-23)</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오전 (08-12)	핵심역량	중	고-일선	고-미창	고-미감비	문풀 -전공 -교육학	룰루♥	오후 (14-18)	복습 (상수준)	복습 (상수준)	전공예습 (상수준)	전공복습 (상, 중)	교육학	전체복습	(20-23)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오전 (08-12)	핵심역량	중	고-일선	고-미창	고-미감비	문풀 -전공 -교육학	룰루♥																																					
오후 (14-18)	복습 (상수준)	복습 (상수준)	전공예습 (상수준)	전공복습 (상, 중)	교육학	전체복습																																						
(20-23)																																												
*밝은 회색: 교육과정 암기 범위 /중간 회색: 전공 /어두운 회색: 교육학 *'문풀'은 각자 문제를 내서 백지에 인출하던 스타디를 의미함 *'전체복습'은 '문풀'에서 인출한 백지를 오답체크하며 복습한 것을 의미함 *큰 계획이며, 전공 및 교육학의 세부복습계획은 0,1,4,7,14,28일의 주기에 따라 다이어리에 적어가며 따로 복습함, 그러나 큰 계획과 겹칠 수 있도록 계산함																																												

내용	내용
----	----

날짜	전공	전공예습	교육학
5/10	미교론	회판조	과정학습
5/17	미교과감상	디자인	교수학습
5/24	서미사현대	한조사공예	교육평가
5/31	서미사근대	동한회화	생지상행정
6/07	동한회화	서미사현대	교육행정
6/14	한조사공예	서미사근대	교육심리
6/21	디자인	미교과감상	교육사회
6/28	회판조	미교론	교육철학

-위상 56월 문풀강의 수강(직강)  
 -취지파악 연습, 문풀 오답 분석  
 -한 달에 전공 1회독 목표  
 -두 달에 교육학 1회독 목표  
 -상중수준 위주의 학습 및 개념 암기  
 -교육과정 암기  
 -키워드 추출, 목차, 기출빈도 정리  
 -개념, 배경, 특징 구분하며 읽기  
 \*\*'전공'은 개인적 중요도 순서에 따름

5월  
~  
6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오전 (08-12)	핵심역량	중	고-일선	고-미창	고-미감비	직강문풀	룰루♥
	전공 상수준	직강복습 (키워드책)	교육학	전공예습 상수준	전공복습		
	오후 (14-17) (18-23)	복습 (상수준)			복습 (상수준)	스터디 인출	

\*'직강문풀'은 위상 56월 문풀 수업을 의미. 화요일에 이전주차 문풀 복습하며 키워드 체크함  
 \*\*'문풀리뷰'는 직강이 끝난 뒤 스터디원들과 그 날의 문풀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의미(오프라인) 집으로 귀가한 뒤에도 개인적으로 문풀 리뷰를 추가로 하였음  
 \*\*'스터디 인출'은 주간 전공, 교육학 범위를 백지 인출하여 밴드에 인증한 것을 의미함  
 \*큰 계획이며, 전공의 세부복습계획은 0,1,4,7,14,28일의 주기에 따라, 교육학은 0,1,7,14,28일의 주기에 따라 다이어리에 적어가며 따로 복습함, 그러나 큰 계획과 겹칠 수 있도록 계산함

내용
----

날짜	전공	전공예습	교육학	
7/05	전체 상수준 출기			-위상 78월 문풀강의 수강(직강)
7/12	미교론	동한회화	과정학습	-취지파악 연습, 문풀 오답 분석
7/19	미교과감상	한조사공예	교수학습	-한 달에 전공 1회독 목표
7/26	서미사근대	디자인	교육평가	-두 달에 교육학 1회독 목표
8/02	서미사현대	회판조	생지상행정	-상중하수준 학습 및 개념 암기
8/09	동한회화	미교론	교육행정	-교육과정 암기
8/16	한조사공예	미교과감상	교육심리	-키워드 추출
8/23	디자인	서미사근대	교육사회	-개념, 배경, 특징 구분하며 읽기
8/30	회판조	서미사현대	교육철학	*'전공'은 개인적 중요도 순서에 따름

7월  
~  
8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오전 (08-12)	핵심역량	중	고-일선	고-미창	고-미감비	직강	룰루♥
	전공이론 (상수준)	직강복습 (키워드책)	전공예습 (상수준)	교육학	전공복습 (상중수준)		
	오후 (14-17)				56복습		
(18-23)	옛날복습	전공복습 (중수준)	옛날복습	전공예습 복습	교육학 복습	직강복습	

- \*'직강'은 위상 78월 문풀 수업을 의미. 화요일에 이전주차 문풀 복습하며 키워드 체크함
- \*토요일 '직강복습'은 직강이 끝난 뒤 스터디원들과, 또 집으로 귀가한 뒤 개인적으로 한 복습
- \*금요일에는 전공 및 교육학 백지 인출하여 밴드에 인증, 56월 문풀 다시 풀이하여 밴드인증
- \*'옛날 복습'은 복습주기에 따라 쌓인 범위를 복습하는 시간을 의미함
- \*큰 계획이며, 전공과 교육학의 세부복습계획은 0,1,4,7,14일의 주기에 따라 다이어리에 적어가며 따로 복습함, 그러나 큰 계획과 겹칠 수 있도록 계산함

- ★새로운 이론과 문제에 집착하지 않으며, 기본이론의 양을 늘리지 않기 위해 집중함
- ★다시 기본이론을 다지며 문제를 보는 관점을 이해하고 도판해석에 집중함

날짜	내용			
----	----	--	--	--

9월 ~ 10월

날짜	전공	전공예습	중요전공	교육학
9/09	미교론	동한회화	서미사	과정학습
9/16	미교과감상	한조사공예	한미사	평가생지상
9/23	서미사근대	디자인	미교론	행정사회
9/30	서미사현대	회판조	미교과	심리철학
10/07	동한회화	미교론	서미사	과정학습
10/14	한조사공예	미교과감상	한미사	평가생지상
10/21	디자인	서미사근대	미교론	행정사회
10/28	회판조	서미사현대	미교과	심리철학

- 위상 910월 문풀강의 수강(직강)
- 전태련 교육학 파이널 모의고사(전년자료재활용)  
주 2~4회 풀이; 키워드 위주로 간략하게.
- 취지파악 연습, 문풀 오답 분석
- 9월에 전공, 교육학 1회독 목표
- 10월에도 전공, 교육학 1회독 목표였으나,  
10월 21일부터 2주 1회독으로 변경
- 상중하수준 학습 및 개념 암기
- 교육과정 암기
- 키워드 추출
- 개념, 배경, 특징 구분하며 읽기
- \*'전공'은 개인적 중요도 순서에 따름
- \*'중요전공'은 중요한 영역만 학습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08-12)	핵심역량	중	고-일선	고-미창	고-미감비	[직강]
오후 (14-17)	[교육학]	[전공] 78복습	[문풀복습] 56복습 910복습	[전공예습] 78복습	[중요전공] 78복습	
저녁 (18-23)	교육학 910모의: 키워드풀이					

- \*위상78문풀은 전공 공부 시 해당하는 영역의 문제와 함께 보며 복습
- \*금요일에는 1주일 동안 인출했던 전공 및 교육학 백지를 모아 밴드에 인증,  
56월 문풀 다시 풀이하여 밴드인증
- \*56월 문풀은 10월 셋째 주까지 혼자서 복습했으나 그 이후부터 짝스터디로 매일 1주차씩 복습
- \*큰 계획이며, 전공의 세부복습계획은 0,1,7,14일의 주기, 교육학은 0,1,4,7,14의 주기에 따라  
다이어리에 적어가며 따로 복습함, 그러나 큰 계획과 겹칠 수 있도록 계산함
- ★쉽다고 생각했던 이론의 인출을 재확인하고 쉽다고 빨리 풀었던 문제를 재점검하는데 집중
- ★아는 문제 놓치는 실수 줄이기에 집중함 → 시험 중에 ①문제 먼저 재확인 ②답지 재확인
- ★상중하수준을 모두 공부하였으나 상수준에 최대한 집중함

11월

- 위상 파이널 직강 수강, 스터디원과 복습
- 전공&교육학 1주 1회독 목표
- 교육학은 매일 전태련 파이널 문풀 1회~2회씩 키워드 풀이
- 짝스터디로 위상56월, 910월 문풀 복습; 1일에 56·910월 1주차씩, 중요 문제 선정 후 복습
- 교육과정 암기
- 시험 전날 전 영역 빠르게 1회독



## IV .2차 준비

2차 준비는 1차보다 끔찍했습니다. 체력적으로 부담이 됐고 정신적으로도 피로함이 몰려왔으며, 내향적인 성격이라 학원, 스터디 등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는 상황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주 6일 수업이 있었던 실기학원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빠졌고 그동안 면접이나 지도안 준비를 했습니다. 일요일에도 쉬고 싶었으나 만나질 정도는 2차 준비를 해야 했고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지옥 같아서 2차 준비 때문에 삼수는 못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1차 시험을 못 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차 준비가 더욱 힘들었습니다. 1차 합격 뒤에는 그나마 안심하고 준비를 하였지만 체력이 받쳐주지 못했습니다.

또한 미술학원 수업에 잦은 결석을 했던 이유는 2차 비중 때문입니다. 서울은 실기가 30%이지만 면접이 40%이며 수업실연과 지도안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이었기 때문에 어느 한 구석이라도 구멍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 내에 실력을 늘리기 어려운 실기에 매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였기에, 골고루 무난한 점수를 받기 위해서 실기 준비시간을 줄였습니다.

그나마 신경 켜던 체력관리로는 수면입니다. 2차 준비치고 잠은 많이 잤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새벽 두시 전에는 잠들었고 최소 5~6시간은 수면을 취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운동할 시간이 도저히 없어서 활동량이 떨어진 탓인지 스트레스 해소가 어려워 컨디션이 1차 준비기간에 비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잠이라도 부족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또한 2차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신경이 예민해졌고 공황장애가 오는 것처럼 가끔씩 숨 쉬기가 힘들어서 스터디에 힘들게 참여했고 이때는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도 좋아하는 음악을 가끔씩 듣고, 마라톤 완주경험을 떠올리며 이까짓 시험은 올해로 끝낸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최종 합격 후 장지연 선생님께서 제 2차 점수가 높지 않다고 하셨는데, 아마 이러한 컨디션 난조로 인해 준비를 소홀히 한 탓도 있을 것 입니다.

다시 생각하기도 싫지만 제가 준비했던 2차 경험에 대해 영역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떠한 부분이 합격요인이었는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2차는 개인의 인상과 목소리, 말투, 태도와 같이 타고난 요인 역시도 무시할 수가 없고, 시험장에서의 분위기, 면접관들의 반응, 시험 직후의 자신의 직감 등이 시험 점수와 직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A .실기

저는 석고물수채화로 대학입시를 준비했었기 때문에 기본기가 있는 편이나, 실기강사를 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은 갖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학교에서는 그림 그리기가 너무 싫어서 방향을 오래 하였는데요. 그래도 초수 시절에 처음 인체소묘와 디자인을 접해본 뒤, 그럭저럭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실기학원은 초·재수 시절 모두 도트미술학원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초수 때 친구가 먼저 다니던 곳이었고, 저도 당시 함께 다녀본 결과 수업방식이 잘 맞았기 때문입니다. 원장선생님의 소묘 수업은 체계적으로 소묘의 정석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디자인 선생님의 수업은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업이 가능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초수시절에는 3~5월, 8월, 특강기간 동안 미술학원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재수시절에는 특강기간에만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년도의 경험도 있었고, 1차를 합격해야 2차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공부 시간을 마련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차 시험 뒤에는 바로 특강 수업에 참여했고 미술학원 수업 외에 실기를 위해서 별다른 시간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술했듯이 컨디션 관리 및 다른 시험 준비를 위해 조퇴나 결석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꾸준히 하였습니다.

미술학원에서 제가 신경 쓴 부분은 제한 시간 내에 완성이었고, 이 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하고자 메모를 해두고 틈틈이 확인하였습니다. 이것 외에는 미술학원의 수업에 따랐기 때문에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본인의 실기실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부족한 부분에 투자하되 골고루 무난한 점수를 받으려는 전략과 시험 당일 제시되는 조건에 유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 B .심층면접

올해 신경을 가장 많이 쓴 영역은 심층면접입니다. 초수시절에 위탁 사립에 1차 합격하고 최종면접에서 고배를 마시며 씁쓸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공립 면접에서는 이를 만회하고 싶었습니다. 씁쓸한 경험이란 개인

신상에 대한 비하가 담긴 질문 몇 가지를 한 면접관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굉장히 불쾌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웃으며 참고 넘어갔는데요. 면접관계서는 아마도 제가 그 학교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평소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자신감 있는 태도가 그 학교에서는 단점으로 작용한 것 같아 최종탈락 이후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부족했던 점은 근거 없는 지나친 자신감과 구체적이지 못한 답변,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무뚝뚝한 인상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래서 공립 면접에서는 크게 튀지 않고 편안하되 전문적인 인상을 주어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었습니다. 또한 공립에서는 개인 신상에 대한 질문이 없기 때문에 2차 준비 전에 시책과 행복한 교육 잡지를 틈틈이 읽으면서 부족한 면접 이론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행복한 교육은 3월~7월호 까지 읽고 요약해 밴드로 인증하는 스터디를 진행했었습니다. 시책과 관련된 동향을 다룬 잡지이기 때문에 가볍게 읽는 것에 의의를 둔 스터디였습니다.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시책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무표정일 때 차가워 보이는 인상이라 2월에 필기 공부를 시작하며 미소 지으며 말하는 연습을 하고 혼자 웃으면서 공부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들리겠지만 당시 저에게는 타인에게 '편안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평소 신뢰감 있고 전달력이 좋은 목소리와 말투를 가졌다는 피드백을 주위 사람들에게 받았기 때문에 편해 보이기 위해서 어린 학생처럼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면접의 시작과 끝에 긍정적인 인상을 주도록 씩씩하게 인사하는 연습도 거울을 보며 여러 번 반복 연습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고 무난히 면접시험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때 했던 답변들에 교육학, 시책, 전공의 내용을 언급하였는데 '가정-학교-마을 삼품의 인성교육', '학교-마을 교육 공동체 더불어 교실', '유니버설 디자인', '학생자치회의', '진로적성검사', '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같이 구체적인 명칭을 들어 채점하기 편하도록 답변하였습니다. 추가질문 및 즉답형 질문에서 다소 유창성이 떨어지게 답변을 하였으나, 자신감 있는 태도와 미소, 구체적인 답변이 이를 만회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과에 도움을 받은 것은 면접 스터디였습니다. 1차 발표 전에는 면접레시피의 범위를 정해 함께 공부하고 책에 나온 문제를 답변하여 서로 피드백해주는 스터디였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만나서 진행했고 많은 문제에 답변하는 연습보다는 이론과 시책을 조금씩 암기하는데 의의를 두었습니다. 이 스터디를 위해서 미술학원 수업 전·후로 면접레시피와 시책을 읽었습니다.

본격적인 실전 연습은 1차 발표 후에 진행한 다른 면접스터디(오프라인)였습니다. 한 번에 3시간 씩 총 6번 진행하였고 같은 지역을 준비하는 분들과 함께 시책암기 및 각자의 면접책에서 문제를 뽑아와 한 문항 당 3분 이내로 답변을 하고 피드백을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답변 시에는 동문서답하지 않고 듣는 사람이 납득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답변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구상형, 즉답형, 추가질문 모두 연습하였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피드백을 해주는 스터디원이 면접스터디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실력이 좋은 분들과 스터디를 하게 되어 그분들로부터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르는 문제더라도 당당하고 유창하게 답변하는 여유 있는 태도 역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미 현직교사이며 면접관들은 저에게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가정을 하고 시험에 임하였습니다(물론 긴장한 탓에 신경안정제도 먹었지만 오히려 입안이 말라 더욱 당황했습니다).

### C .수업실연

수업실연은 매우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하여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실연 역시 저의 외양과 태도가 노출되기 때문에 면접 준비처럼 미소를 띠며 수업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이 날은 신경안정제도 먹지 않았는데, 시험 마지막 날인데다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 될 대로 되라는 마음에 긴장이 덜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기실에서는 지도안 시험이 끝난 뒤 점심을 먹을 수 있게 했지만, 엄숙한 분위기에서 꾸역꾸역 식사하다간 체할 것 같아 많이 먹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맨 뒤에서 5번째 즈음 수업실연을 했기 때문에 구상할 시간이 굉장히 많았으나 오히려 너무 긴 대기 시간에 생각이 많아져 지도안에 썼던 학습목표를 틀린 것으로 간주하고 다시 바뀌가며 실연을 구상하는 등, 매우 지쳐갔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오후 5시가 넘었고 빨리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수업실연에 대한 경험은 대학원 재학 중에 관련 수업을 들으며 피드백을 받았던 경험, 초수시절에 위상 2

차 강의, 스터디, 사립 준비 등을 통해 여러 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신감 때문에 재수시절에는 수업실연에 너무 많은 시간투자를 하기가 싫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들었던 영향도 있었기에 1차 발표 전에는 아예 하지 않았고 1차 합격 후 실연 스터디를 구하여 총 2번 참석해 4번의 실연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장지연 선생님께서 마련해주신 자리에서 실연을 하여 현직 교사 분들에게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실연 경험에서 받은 소중한 피드백을 반영하여 시험에 임하였고, 제 기준으로 무난하게 시간을 맞춰 실연을 끝냈습니다(20초 남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지도안에 썼던 학습목표가 틀린 것 같아 수업실연에서는 학습목표 1을 다른 것으로 바꿔 설명하였는데, 오히려 바꾼 학습목표가 틀린 내용이었고, 도입에서 전개과정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부자연스러워서 아마 이 부분에서 감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제시된 자료 중 일부(과학적 원리 중 '관절의 원리')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도 짚짚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당시 진행했던 실연스터디는 타 지역 선생님들과 함께했는데요. 각자 실연문제를 준비하여 서로 바꿔 즉석에서 구상해 실연하기, 자신이 준비한 별도의 지도안에 맞춰 실연하기의 방식을 모두 사용해 1일 2번의 실연을 실제 시험 시간에 맞춰서 해보고 서로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함께 했던 선생님들께서는 지도안 시험이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저도 즉석에서 구상시간을 갖고 실연해보는 연습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연도 보고 여러 번 실연을 해보면 자신만의 틀이 만들어지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평소 연습시에 동기유발에서 학생의 경험을 이끌어내는 발문하기, 동기유발에서 최소 3개의 발문을 만들기, 동기유발과 학습활동 안내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교실에 앉아있는 학생들의 위치 및 이름을 임의로 정해서 암기하기, 모둠 이름 만들어두고 모둠원 역할 정해두기, 개방적인 질문을 하고 후속질문으로 심화하기, 수업 중 디지털 매체를 사용할 때 유의사항 상기시키기, 순회지도 시 칭찬할 모둠이나 학생·개선점을 지도할 모둠이나 학생을 정해두기, 학생들 간에 도움이 활발하도록 지도하기 등과 같은 부분에 신경을 썼고 말하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도록 주의하였습니다.

#### D .교수학습지도안

지도안은 제가 가장 싫어하던 시험이었습니다. 1차 대비 문풀 시 장지연 선생님께서 지도안이 포함된 교육과정 문제를 내실 때마다 저는 학습목표도 제대로 못 쓰거나 교수-학습 활동 역시 취지에 종종 어긋났습니다. 또한 지도안을 만들 때에도 동기유발이 너무 어려워서 지도안 자체에 트라우마가 있었기에, 지도안 시험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게다가 초수시절에는 어차피 1차에서 떨어질 것 같아 2차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요. 재수시절에는 마음을 바꿔 스터디라도 성실히 해서 무난한 점수를 받고자 했습니다.

초수 시절에 위상2차 강의를 수강하며 기출자료와 여러 자료를 받았고, 재수 시절에 저는 이 자료들을 참고하며 친구와 짝스터디(전화)로 각자 만들어둔 지도안을 공유하고 어떤 수업인지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주 2회씩 1차 발표 전까지 진행하였으며, 지도안은 도입단계 까지만 작성하고 동기유발에서 적절한 발문을 만드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학년은 자유, 단원은 체험, 감상을 위주로 하여 이 가운데 자신이 취약하거나 출제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 영역을 선정해 지도안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스터디 덕분에 동기유발에서 적절한 발문 여러 개를 작성하는 것이 전보다 수월해졌습니다.

1차 발표 후에는 수업실연 스터디 준비를 위해서 지도안을 만든 것 말고는 다른 스터디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시험 시간에 맞춰 지도안 문제를 풀어보고 싶었으나 그럴 여유가 없었고 어떻게든 될 거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하며 실제 시험에 임하였습니다. 당시 '미술과 과학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귀납적 교수법을 적용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많은 조건과 제시된 자료를 참고하며 지도안을 작성하다보니 1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제가 워낙 지도안에 약하기 때문에 대략 3분 정도를 남겨두고 지도안 작성을 마쳤으며, 남은 시간에 어떤 발문을 썼는지 조금이라도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수험생 작성 부분이 아닌 회색 부분도 참고하고 지도안 내 자료 및 유의사항도 활용해 작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지도안 시험이 10시에 끝나면 그 이후부터는 대기 시간입니다. 견어간 지도안은 자신의 차례가 오기 전까지는 볼 수 없고 대기실에서는 메모도 불가하기 때문에, 기억에 의존해서 수업실연을 구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단순하고 무난하게 지도안을 작성하려고 했습니다.

## V .마무리

합격보다 합격수기를 쓰고 싶었고, 합격보다 수석을 원했던 마음으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포기하였지만, 제 자신을 과거보다 더 잘 알게 되었고 최종합격으로 인해 더 발전할 기회를 얻었으며 저보다 뛰어난 동료들과 교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제 인생에 있어 이 시험은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또한 희노애락을 함께 견딘 가족과 동료, 학원 선생님들의 지지와 응원 역시 험난한 레이스를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분들이 멘탈이 약하거나 이해력이 부족하고 또래보다 발달이 느리다는 콤플렉스를 갖고 있어도, 자신에게 잘 맞는 효과적인 전략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있다면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장황하게 쓴 저의 합격수기가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전략을 탐색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같은 미술교사로서 만나 뵙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s.

용어사전 스테디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초수시절에는 세계미술용어사전·현대미술용어사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중요하다 싶은 용어를 선정해 퀴즈를 내고 풀어보는 스테디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경험이 풍부한 지식을 쌓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1차 합격에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II장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선택한 강사의 이론을 모두 소화하신 상태라면 공부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만, 초수이신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수험생으로 돌아가 다시 용어사전을 공부한다면 다음과 같은 부분에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 1.기출되었던 용어 또는 기출된 내용과 관련된 용어
- 2.주요 미술사조와 관련된 용어 - 개념, 특징, 주요작가, 영향관계가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확인
- 3.용어 설명과 함께 언급된 작품 찾아보기 - 2020년 기출 중, 평탈 문제의 경우 용어사전에 작품이 언급됨 ex) 아래 표는 초수시절에 제가 만들었던 용어사전 퀴즈의 일부입니다.



청동금은보상화문경



꽃장식(○)칠기,  
안압지 출토

(○)은/는 칠기에 금이나 은판을 무늬에 따라 오려붙이고 다시 옷칠한 후 표면을 연마하여 금은판이 나타나도록 하는 기법이다. 한국에서는 나전칠기에 선행하거나 기법상으로 병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신라시대부터 출토되기 시작하는 이 기법의 유물 중에서 특히 안압지 출토 유물은 목제품에 옷칠을 두껍게 올리면서 화문의 은박판을 부착시킨 것으로, 불구(佛具)와 같은 특수용도의 물건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장식은 상당 기간 제작되면서 한국화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4.건축, 공예, 불교, 기법 등으로 영역을 나눠 관련 용어 정리하기 - 아트리움은 저도 몰라서 못 썼습니다. 용어사전을 공부할 때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시 용어사전을 본다면 건축, 공예, 불교, 기법, 미술사 등으로 큰 영역을 나눠서 그 영역에 해당하는 용어를 명칭만이라도 분류할 것 같습니다.